

사회

도심 불법 물놀이 시설 '배짱영업'

쌍암지구 KT부지 무상대여 장사
광산구청 시정명령만... 계속 방치

도심 내에 불법으로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업자가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23일 광산구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95-1번지 일대 1만2000여평 부지에 불법 물놀이 시설이 설치돼 영업중에 있다.

날 경우 책임소재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부지에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3.5m 높이의 에어바운스 6개와 PVC재질로 만든 가로20m X 세로25m 크기의 수영장 1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수영장이 총 6개나 되는 등 물놀이 시설이 초대형 규모로 설치돼 있다.

특히 20여 개의 부스를 설치, 수백 여만원씩 받고 사실상 무허가 점포들을 개인에게 임대하는 등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토지 소유주인 KT측이 토지사용에 대한 무상대여 취소 통보했으나 이씨는 물놀이 시설은 폐쇄하지 않고 있다.
감독관청인 광산구는 유원시설업 허가 기준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25일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린 뒤 계속 방치하고 있다.



후기 학위식 수여

2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열린 2011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축하 꽃다발을 헌의를 안고 기뻐하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대 총장 후보 당선 서재홍 교수
"구성원 화합·소통 적극 추진
거점대학 새 면모 갖추겠다"

조선대 제15대 총장선거에서 서재홍 교수가 네번의 도전 끝에 총장 후보(1순위)로 당선됐다.
서 후보는 지난해 14대 총장선거에서 총장 후보(1순위)로 당선되고 후보간 담합에 따른 불공정 선거 등을 이유로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 후보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271표를 얻어 2위 후보(강동완, 197표)와의 표 차이를 74표로 크게 벌였다. 3위는 168표를 얻은 김하림(56·외대 중국어문화) 후보였으며 이어 조병욱(64·공대 화학공학), 임동운(58·의대 약리학)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취업을 제고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내세웠다.
서 후보는 "아직 이사회와 총장 선임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총장후보로서의 적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구성원 사이에 화합이 넘치며,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다음달 3일 회의에서 1, 2순위인 후보자 면접을 거쳐 신임 총장을 결정하며, 취임식은 27일 열릴 예정이다.
서 후보는 '화합·혁신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학'과 '섬김의 리더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서 교수는 핵심 공약으로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전문진료센터 집중 육성 ▲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람대 적립금 작년 한해 2787억 늘어

146곳 누적액 8조 육박

지난해 전국 사람대의 누적 적립금이 278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4년제 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사립 4년제 대학 146개교의 적립금은 총 7조 9463억원에 달했다. 2010년에는 7조 6676억원이었다. 누적적립금이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 6849억원, 홍익대 5860억원, 연세대 4556억원, 수원대 3120억원, 청주대 2667억원, 고려대 2502억원 순이었다.
146개교 가운데 인솔액보다 적립액이 많아 2010년부터 적립금이 증가한 대학은 106개교(72.6%)였다. 적립금이 감소한 대학은 35개교(24%) 뿐이었다. 5개교는 적립금이 변동이 없었다.

적립금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대학도 24개교에 달했다. 성균관대가 450억원이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홍익대(323억)와 이화여대(280억)가 그 뒤를 이었다.
'낙태시술 조산사 처벌 합헌' 현재 결정
낙태 시술한 조산사 등을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현재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위헌) 대 4(합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중 조선대 취업률은 지난해 51.5%에서 57.3%로 상승했으며, 전남대는 49.6%에서 48%로 하락했다.
광주대는 67.7%로 '다'그룹(졸업생 1000명~2000명 미만)대학 중 광주·전남 1위(전국 19위)를 차지했다.
남부대는 70%로 '라'그룹(졸업생 1000명 미만) 중 광주지역 1위에 올랐다.
전문대학 중에는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88%)·목포캠퍼스(82.1%), 기동간호대(80.5%), 전남과학대(70.3%), 광주보건대(68.9%)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 취업률 조선대 늘고 전남대 줄어

목포해양대 82% 최고

졸업생 3000명 이상 전국 대형 대학(31곳)의 2012년 취업률 조선대가 10위를 차지했으며, 전남대는 28위였다.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에는 목포해양대가, 전문대 중에는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가 각각 취업률이 가장 좋았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

역 4년제와 전문대·일반대학원의 평균 취업률은 광주가 59.5%, 전남은 59%로 나타났다. 광주는 광역시 중 부산(59.1%) 다음으로 낮았고, 전남은 경남(61.7%)·전북(61.5%) 강원(59.2%)에 이어 4번째다.
대학별로 보면 4년제 대학 중 목포해양대가 81.8%로 1위였다. 다음으로 한려대(76.9%), 남부대(70%) 광주주대(67.7%), 동신대(65.4%), 세한대(65%), 초당대(64.3%), 광주여대(61.6%), 호남대(57.6%) 등의 순이

다.
이중 조선대 취업률은 지난해 51.5%에서 57.3%로 상승했으며, 전남대는 49.6%에서 48%로 하락했다.
광주대는 67.7%로 '다'그룹(졸업생 1000명~2000명 미만)대학 중 광주·전남 1위(전국 19위)를 차지했다.
남부대는 70%로 '라'그룹(졸업생 1000명 미만) 중 광주지역 1위에 올랐다.
전문대학 중에는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88%)·목포캠퍼스(82.1%), 기동간호대(80.5%), 전남과학대(70.3%), 광주보건대(68.9%) 등의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남해안 일부 호우주의보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다.
광주: 흐리고비 23/30°C
목포: 흐리고비 24/29°C
여수: 흐리고비 24/28°C
나주: 흐리고비 23/30°C
완도: 흐리고비 24/29°C
구례: 흐리고비 24/30°C
강진: 흐리고비 24/29°C
해남: 흐리고비 24/29°C
장흥: 흐리고비 24/29°C
순천: 흐리고비 23/29°C
영광: 흐리고비 23/29°C
진도: 흐리고비 24/29°C
전주: 흐리고비 23/28°C
군산: 흐리고비 22/28°C
남원: 흐리고비 22/28°C
옥산: 흐리고비 24/27°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지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초대형 태풍 북상...내주초 영향권

광주·전남 27일째 강한 비

지난 2010년 2200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초대형 태풍 '곤파스'(KOM-PASU)와 비슷한 크기의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볼라벤(중심기압 960hPa, 최대풍속 40m/s)이 이날 오전 9시 현재 광 북서쪽 약 1200km 부근 해상에서 시간당 9km의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 기상청은 볼라벤이 27일 오전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약 380km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태풍은 올해 영향을 준 태풍 중 가장 강한 대형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볼라벤의 영향으로 26일 서해남부해상과 남해상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광주·전남지역은 순간최대풍속 30m/s 수준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27~28일 광주·전남은 100~20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300mm.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다음달 이 지역의 기온은 평년(21~22도)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148~192mm)과 비슷하겠다. 10월에는 쌀쌀한 날씨를 보이며 기온이 평년(15~17도) 수준을 회복하고, 11월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겠다.
한편 24일 광주·전남지역은 30~70mm의 비가 내리고, 주말과 휴일인 25~26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이 있습니다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